

“발걸음에 생명의 염원 담아...”

‘대운하 반대’ 100일 대장정 순례단 봉암사에서 참회·정진법회

첫 발걸음은 2월 12일, 경기도 김포 애기봉에서 시작했다. 생명의 강을 살리고자 길을 나선 종교인과 참가자들은 100일간 강을 따라 걷고 또 걷는다. 그 길에서 이들은 홍도평야의 재두루미와 여주의 아름다운 습지를, 허리가 잘려 나가고 있는 산과 골재채취로 흉한 모습을 드러낸 강을 만났다. 또한 그 길에는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함께 걸어온 시민들과 갖 결혼식을 치른 신혼부부, 방학 중인 초등학교생이 동참했다.

길을 나선지 25일째인 3월 7일, 초파일을 제외하고는 쫓겨간 개방하지 않는 문경 봉암사주지합천(사) 산문을 활짝 열고 이들을 맞았다. 이날 봉암사에서 열린 ‘부처님 마음과 생명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참회·정진법회’는 대운하 건설의 부당성을 일리고 계획 전면 백

지회를 주장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월주 스님은 “한반도대운하 구상은 생명 터전인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서원을 담아 못 생명 고향이자 불국토의 터전인 한반도를 보존하고 가꾸는 보행자로 살아가자”고 법문했다.

봉암사 주지 합천 스님은 “대운하 문제를 우리 삶의 전반을 성찰하는 정진의 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땅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부디 생명의 눈을 뜨고 대운하 건설의 미망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인 도보순례를 기획한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화계사 주지)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경제 살리기가 아무리 절박해도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대운하 계획 백지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화계원장 발등 스님과 봉암사 선원장 정광 스님도 도보순례단의 노고를 치하했고, 참가자들은 참회 발원문을 통해 “오늘의 기도 수행과 성찰의 첫걸음이 될 것”을 발원했다.

앞서 3월 5일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세영도) “더 이상의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기 전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위는 앞으로 대운하 건설 예정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경 기자 snopy@buddhapia.com

사찰등급제 실시 방안 ‘핵심’

조계종 분담금 제도개선공청회



3월 6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조계종이 각 사찰에 부과하고 있는 분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황적) 산하 ‘사찰과 종단의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모임(위원장 조격)’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1차년도 성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조격 스님과 ‘분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 및 관련 쟁점’을 발제한 주경 스님은 분담금 부과 실태와 문제점을 먼저 살폈다. 조격 스님이 제시한 지난해 종단 분담금 분포표를 보면, 50만원 미만 납부 사찰이 21.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납부 사찰이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찰의 56.4%가 100만원 미만은, 84.5%가 500만원 미만은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조격 스님은 “이러한 현실은 사찰이 제출하는 예산서가 재정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주경 스님은 “분담금 책정 및 납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종단 집행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두 스님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찰과 사찰사암 모두 세분화된 등급조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법론에 대해 조격 스님은 “사찰등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개별 사찰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경 스님은 “사찰 총수입

을 등급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되, 사찰의 교육·복지·포교시설 운영 여부, 입지 여건, 주변 환경 등을 사찰등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두 스님은 특히 사찰사암에 대한 분담금 부과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 조계종 전체 사찰 중 사찰사암이 62.6%(1499개, 2006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분담금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으므로, 사찰사암 또한 공찰과 동일한 사찰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학원과 대각회 등의 법인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총무원 재무부장 장석 스님은 사찰등급제 실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장석 스님은 “지난해 종단 전체 예산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5%(약 42억)에 불과한데, 굳이 사찰등급제를 도입해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1994년 이후 교구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말사의 분담금은 본사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진 스님(영주 관음사 주지)은 “중앙분담금은 총무원에, 교구분담금은 본사로 납부하는 등 징수 방식을 이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원명 스님(광명 금강선원 주지)은 “사찰등급평가 시 사찰의 구체적인 재정현실을 고려하고, 공찰과 사찰사암의 차이점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남 스님(양양 낙산사 주지)은 “특별 분담사찰도 교구형 행평성에 맞게 지정해야 한다”며 “사찰의 교육·복지·포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결해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또한 “사찰등급 심사에서 재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총예산만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또한 사찰의 토지매각 시 부과되는 분담금도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여수경 기자

분담금이란?

조계종이 종단의 유지·운영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속 사찰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사찰 등급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현행 분담금 제도가 시작됐고, 1994년 종단 개혁 후 종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분담금 부과 원칙을 마련해 오늘에 이른다. 크게 분담금과 목적사업분담금, 종단목적사업기금이 있으며 분담금에는 중앙분담금과 관람료분담금, 교구분담금, 특별분담금, 직역분담금 등의 종류가 있다.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반발 목소리

사설 박물관 “경영악화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이명박 대통령 문화 공약이었던 국립박물관·미술관의 무료 관람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31개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이 무료로 되면 과연 공약 의도처럼 문화복지가 실현되는 것일까?

우선 국립박물관 등이 무료화가 되면 불교중앙박물관 등 성보박물관과 사설박물관 등도 무료 개방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 무료가 되지 않더라도 국립시설에 편중될 관람인원을 어떻게 유류시설로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은 “불교중앙박물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입장료는 박물관의 수입보다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무료관람제 실시가 관람객 증가를 가져오지만 결국 적정 관람 인원을 초과해 문화재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스님의 우려다.”

사설박물관인 고판화박물관을 운영하는 선학 스님은 “입장료 수입이 전시 기본비용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스님은 또 “박물관 무료개방은 영세한 사설박물관의 경우 문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 주장했다. 선학 스님은 이에 더해 “문화가 공짜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 무료관람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찾아가는 문화’ 등 무료행사를 실시해 본 결과 “문화를 감상하게 수용하기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문화재의 무료개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한국박물관협회 등 사립 문화기관들도 이 같은 이유로 무료관람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범하 스님은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관람제와 별개로 사설박물관들이 전시의 차별화를 꾀하면 관람객 수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하지만 공약실현을 환영하기에 앞서 공짜논리에 휩쓸려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조동섭 기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승진가산점 부여단체로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가 3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승진가산점 부

여 가능 단체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파라미타는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파라미타 설립을 촉진시켜 서울지부 조직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제도란 교육부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증진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에서 공인된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파라미타는 올 2월 서울시교원 직무교육연수를 유치 등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교육청에 추가지정을 요청해 승진가산점 부여단체로 지정 받았다. 김강진 기자

3·1절 기념 민해백일장 동국대 중강당서 개최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범수)는 3월 1일 제89주년 3·1절을 기념해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29회 민해백일장’을 개최했다.

민해백일장 사상 최대인원인 1525명의 청소년 및 일반인이 참가한 이번 백일장에서는 ‘설거지’ ‘어깨’ ‘나의교실’ ‘부끄러움’ ‘자화상’이 시제로 제시됐으며 시·시조 부문과 산문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상에는 시·시조 부문 백낙원(인천 신송고 2), 산문부문 신윤정(서울 중경고 3) 학생이 각각 당선돼 문화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 받았다.

백낙원 학생은 ‘어깨’라는 시를 통해 태안기름유출 사고 현장을 아련하게 그렸고 신윤정 학생은 ‘나의 교실’이라는 산문에서 교실을 화자로 설정,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들을 의인화시켜 경쾌하게 풀어냈다. 김강진 기자

www.sunbul.co.kr

성 불 조 각 원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니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옹두..
- 연 법상, 목어, 불명계,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삼당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니한

은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